

트럼프, 美 대선 공화당 경선 사실상 승리

“3개주 이겨... 나머지 승리 예상”
민주당 바이든 2연승 기염
‘미니화요일’ 미시간주 승리
샌더스는 힘겨운 추격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의회를 찾아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오찬 정책담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치러진 공화당 주별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실시된 미시간-미시시피-미주리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주 경선에서도 손쉬운 승리가 예상된다. A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공화당이 치른 이날 경선은 미시간-미시시피-미주리-위싱턴-아이다호 등 5개 주에서 실시됐다.

미 인터넷 매체 북스에 따르면 이날 경선에서 공화당의 경우 워싱턴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후보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경쟁자로 나선 상황이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열린 경선을 휩쓸고 있고, 아울러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손쉬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달리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진행 중인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 13개 주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다.

같은 날 6개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6차 대선 경선에선 미국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대 승부처인 미시간을 비롯해 미시시피, 미주리 주 등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꺾고 승리를 누렸다.

14개 주에서 동시 경선이 치러진 ‘슈퍼 화요일’에서 10개 주를 싹쓸이하는 대승

으로 대역전극의 이변을 쓰지 일주일 만에 ‘미니 화요일’에서도 ‘3M’ 주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며 2연승의 길을 닦았다.

이로써 경선 초반전 추락을 거듭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첫 승리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뒤 슈퍼 화요일에 이어 미니 화요일에 이르기까지 약진을 이어가며 대세론에 날개를 달게 됐다.

미주리주와 미시시피주에서는 각각

66%, 64% 개표 결과를 기준으로 60.8%, 81.0%의 득표율로 각각 33.6%, 15.0%에 그친 샌더스 상원의원을 압도적인 차이로 눌렀다.

미 언론은 이들 3개 주에서의 바이든 부통령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보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성이 커 ‘미니화요일’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미시간주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 지대)로 꼽히는 미시간주는 오는 11월 대선의 승부를 좌우할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의 하나다.

미시간은 4년 전인 지난 2016년 경선 때 샌더스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과 함께 ‘초박빙’의 차이로 신승한 곳으로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서 중요한 본선 교두보를 구축한 셈이 됐다.

본선 티켓을 확정 짓는 ‘매직넘버’ 1991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려면 같 같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세론을 재구축함으로써 샌더스 상원의원이 반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사실상 조기에 승부가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불·미 정가로 변진 코로나19 비상

보건부 차관·의원 5명 확진
트럼프 만난 정치인 자가격리

영국과 프랑스, 미국 정가에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이딘 도리스 영국 보건부 차관이 10일(현지시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보수단체 행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과 악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도 문화부 장관과 하원의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이 중에서도 영국 정가가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 도리스 차관이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최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비롯해 여러 의원, 정가 인사들과 연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도리스 차관은 현재 격리 중이며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도리스 차관과 대면 접촉한 정가 인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영국 하원에서는 도리스 차관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하원 건물 폐쇄나 출입제한 여부까지 당면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대규모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백악관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여부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당장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백악관 비밀경호국(SS)에 코로나19 노출 위험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집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안전거리 유지하는 이탈리아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한 우체국에 들른 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U “코로나19 위기 대처 34조원 기금 마련”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50억 유로(약 33조9000억원) 규모의 EU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 논의를 위한 긴급 화상 회의를 한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투자기금은 EU가 75억 유로(약 10조2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대야 하며, 이 기금은 취약한 경제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코로나19 발병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원지인 우한을 방문해 생필품 구입과 공급 상황을 물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한 의사들 “당국 은폐 때문에 동료들 죽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을 처음 알린 뒤 세상을 떠난 의사 리원량이 일했던 후베이성 우한의 병원은 의료진의 피해가 다른 곳보다 컸는데 당국의 정보는 폐가 한 원인이라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11일 보도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우한중심병원은 의료진 4000명 가운데 230명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됐는데 이는 우한의 병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난 9일에는 주허핑이 리원량과 장쉐칭, 메이징밍에 이어 이 병원에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숨진 4번째 의사가 됐다. 흉부와 부주임과 비노기과 부주임도 위중한 상태라고 병원 수간호사는 전했다.

우한중심병원의 한 부원 책임자는 당국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병이 통제 가능하며 사람 간 전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로

수백명의 의사와 간호사는 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환자를 치료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 의사와 간호사는 자신들이 발병했을 때도 발병을 보고할 수 없었다. 동료나 대중에게 적시에 알릴 수도 없었다”면서 “이것이 가장 뼈아픈 사실이자 교훈”이라고 말했다.

우한중심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된 발원지로 추정되는 화난수산시장에서 가까운 병원 가운데 하나로 발병 초기에 가장 많은 환자를 받았다고 이 병원 의사는 말했다. 1세대 감염은 더 치명적일 수 있는데 리원량과 메이징밍이 같은 환자로부터 전염됐을 수 있다고 의사들은 전했다.

병원 행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병원의 당서기는 감염병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들이 중요한 공공보건 정보를 전파하는 것도 금지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일본 코로나19 감염자 58명 늘어 1278명

국내 사례 58명 최다 증가
사망자는 3명 늘어난 19명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78명으로 늘었다.

11일 NHK가 후생노동성과 각 지자체의 발표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일본에서 감염됐거나 중국에서 온 여행객(국내 사례) 568명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696명 ▲전세기편 귀국자 14명 등이다. 전날인 10일 같은 시간의 NHK 집계 대비 58명 늘어난 수치다.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국내 사례다. 대체로 일본 지역사회 감염인 국내 사례 확진자가 하루에 58명 늘어난 것은 지난 1월 16일부터 NHK가 집계

를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일본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19명으로 하루 새 3명 늘었다.

한편 고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1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적어도 1만9020건의 유전자 검사(PCR) 검사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PCR은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후생성은 도도부현별 코로나19 검사 건수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가장 코로나19 검사를 많이 한 가나가와현은 2151건, 가장 적게 한 이와테현은 27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나가와현의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많은 것은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의 검사를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고도통신은 전했다.

이 밖에 도쿄도 1767건, 지바현 1566건, 홋카이도 1209건 등이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원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